

영역 고시조에 나타난 번역상의 문제점: 이순신, 이조년, 김종서 시의 경우

장 인 식
(중부대)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현재 국내외에서 번역 출간된 영역 고시조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필자의 번역시조를 소개함으로써 영역 시조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영어 번역본에 오역이 많이 있다고 판단된 이순신, 이조년, 김종서의 시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6권의 번역 시조집에 나타난 이들의 시조를 살펴봄에 번역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번역을 번역하고자 하는 두 언어의 구조적, 의미적, 인지적, 문화적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상응점을 찾는 일이라 정의할 때, 한국어와 영어는 어순이나 문장 구조, 문법 등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번역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따르게 된다. 특히 고시조의 경우 번역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충실한 글읽기, 즉 원

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다른 어떤 작품의 경우보다 선결 과제로 떠오른다. 이는 고어체의 문구나 어려운 한자 용어들이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에게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시조의 독특한 형식과 운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조는 3장으로 구성된 우리 나라 고유의 정형시다. 중국 고유의 정형시 절구(絶句)가 네 줄이고 일본의 단가(短歌)가 두 줄인데 비해 시조는 그 중간인 세 줄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문화의 양상이 대체로 두 나라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견해와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시조의 형식인 장과 구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시조의 경우 3장 6구 12음보로 이루어진 정형시로 정의하고 있다. 보통 초장에서 의미를 일으키고, 중장에서 발전시키며, 종장에서 마무리짓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장(章)은 2구 4음보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상 단위로 행(行)이라고도 불리운다. 고시조에서는 반드시 초·중·종장을 3행으로 배치시켰지만 현대시조에 와서는 장을 몇 개의 행이나 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시조의 운율은 우리말의 액센트가 보통 하강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음보 넷을 단위로 하는 강약 4보격(trochaic tetrametre)이 곧 시조의 음보율이 된다. 사실 영어나 한사에서 논의되고 있는 엄격한 압운법을 시조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면에서 보면 무운시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압운 적용은 불가능하다 해도 두운, 요운, 각운과 같은 운의 존재는 인정해야 한다(신웅순 78).

고시조를 영역할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3장(행)으로 된 시조의 형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개된 영역 고시조의 경우 번역자의 주관에 따라 5~8행에 걸쳐 임의대로 분행하여 처리하고 있고, 심지어 각 장을 하나의 연으로 분연하여 번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본 논문에 인용된 영역 시조집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 인용된 영역 시조집은 다음과 같다.

- a) Kim Unsong, *Classical Korean Poems (Sijo)*, Il Nyum
- b) Peter H. Lee, *Poems from Korea*, An East-West Center Book

- c) Richard Rutt, *The Bamboo Grove*, Univ. of California Press
- d) Inez Kong Pai, *The Ever White Mountain*, John Weatherhill
- e) Jaihiun J. Kim, *Master Sijo Poems from Korea*, The Sisayongosa
- f) Kevin O'Rourke, *The Books of Korean Shijo*, Harvard Univ. Asia Center

a)의 경우 초·중·종장 각 장을 하나의 연으로 처리하여 모두 3연으로 번역하고 있고, b)에서는 대체로 각 장을 두 행으로 나누어 전체를 6행으로 처리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9행이나 3연으로 분행 분연하여 번역하고 있다. c)와 d)의 경우에는 시조에 따라 6~7행으로, e)의 경우는 일관성 있게 6행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2002년에 출간된 f)의 경우에는 다른 번역자의 작품과는 달리 5행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초장을 1-2행, 중장을 3행, 종장을 4~5행으로 분행하여 번역하고 있다. 게다가 3행과 5행을 길게 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4행을 아주 짧게 함으로써 독창적인 시형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옮겼을 경우 단어수가 증가한다. 최정아에 의하면 한국어 문장 40개의 경우를 살펴보면 평균 단어수가 438.15개인데 그에 따른 영어 번역문의 평균 단어수는 707.6개로 나타나고 있다(90). 이러한 주장은 위의 번역시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행으로 된 고시조를 대부분 6~9행으로 분행하여 처리함으로써 각 장을 2~3행에 걸쳐서 하고 있다. 그 결과 번역시가 원시보다 1.5~2배정도 길어져 원시의 스타일이나 함축적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설명조의 문구나 역자의 지나친 상상, 장황한 문구, 불필요한 단어들을 과감하게 삭제해야 한다. 여기서 번역 시집 f)의 경우 역자가 자신의 책 서문에서 3행으로 된 원시를 5행으로 번역한 이유에 대해 1) 가곡이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 5행으로 된 독특한 형식이 영어권 독자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가곡은 노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 읽히는 시조와는 엄연히 다르고, 3행으로 된 정형시인 고시조를 영어권 독자들의 입맛에 맞춘다고 5행으로 함으로써 형식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시의 형식이나 운율을 번역시에서 그대로 살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나라마다 어법이 다르고 민족의 성정이 다른데 다른 나라의 어법을 빌리면서 형식까지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번역된 작품은 형식(율)이 아닌 의미(율)에 초점을 두게 되고, 3행 6구의 시조 형식을 영어에서 3개의 문장(sentence)과 6개의 구(clause)에다 맞추어 의미(율)로 번역할 수밖에 없게 된다(시조월드 296).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번역자가 애써 시조의 형식율에 가깝게 번역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고시조를 경우 자수까지는 맞추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행’의 수는 원문과 동일해야 한다고 본다. 시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정형’이다. 정형시에 있어서 그 형태를 벗어나면 자유시나 산문시가 되지 결코 시조는 아니기 때문이다(신대주 149). 게다가 번역에서 원문의 문체나 구문, 문장의 장단, 하나하나의 어휘에 대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안정호 76), 각 행의 길이와 운율, 이미지까지도 최대한 살려주어야 한다. 단지 의미만을 전달하기 위해 역자 나름대로 내용을 풀어 설명하는 식이 아닌, 간결성과 함축미를 지닌 운문으로서의 맛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 영어 번역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

1. 이순신의 시조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끊나니

이순신(1545-1598)의 작품으로 선조 28년(1595) 전쟁 중에 쓴 우국 충정의 작품이다. 휘영청 밝은 달과 고요한 바다, 밤의 적막은 태풍 전야의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다. 악독하고 집요한 왜군, 지원군으로 왔지만 사사건건 말썽만 부리는 명나라 군사들, 또 병상에 계신 어머니와 가난한 살림살이, 게다가 조정의 지원도 변변치 못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장군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이다(성낙은 263). 이러한 전경 속에서 시인은 명나라 병사가 부는 피리소리에 더욱 단장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

<번역1> Hansan Island, moonlit night,
I sit on the watchtower alone

Bone-weary over the war's plight
Wearing a huge sword in my waist

Somewhere a sound of grass flute,
quite
Disturbs my soul in the wind (Kim Unsong 98)

제2연 1행의 “bone-weary over the war's plight”는 원문의 “깊은 시름하는 적에”를 옮긴 것이다. 그런데 ‘bone-weary’는 어떤 일에 지치고 싫증이나 녹초가 된 상태를 뜻하는데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 “the war's plight”(전쟁의 어려운 상황)에서처럼 굳이 ‘전쟁’이란 시어를 넣을 필요가 없다. 물론 전쟁의 어려운 상황이 걱정의 주된 요인이었겠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누워 계신 어머니의 건강 상태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쟁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2행에서는 “큰 칼 옆에 차고”를 “wearing a huge sword in my waist”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보통 ‘칼을 찬다’고 할 때는 ‘wear a sword at one's side’ 또는 ‘with a sword at the side’에서처럼 waist보다는 side를 선호한다.

제3연은 원문의 종장을 3행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는데, ‘quite’를 구태여 한 행으로 할 필요가 없다. 혹시 이러한 시적 장치를 통해 시인의 산란한 마음 상태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통일성을 해치며 눈에도 거슬린다. 3행에서는 “나의 애를 끊나니”를 “disturbs my soul in the wind”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disturb one's soul’은 ‘마음(정신)을 산란하게(불안하게) 하다’의 뜻인데 원시의 ‘애를 끊는 것’, 즉 애간장을 녹이는 극도의 슬픔과 비교하면 의미가 너무 약하다. 마지막의 “in the wind”도 시의 간결성 면에서 생략하는 것이 좋다.

<번역2> On the garrison tower,
In the moonlit Hansan Isle,

A great sword beside me,
 I sit alone, sunk in sorrow.
 Listen, a reed-leaf whistle in the dark —
 It pierces my entrails; aye, they shake. (Peter H. Lee 106)

제3행의 “a great sword beside me”는 원시의 중장 “큰 칼 옆에 차고”를 영역한 것인데 ‘beside me’는 (칼을) 차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옆에 두고 있다는 뜻이 되므로 부적절하다. 4행의 “sunk in sorrow”에서 ‘sorrow’는 슬픔이나 비애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말로 소중한 사람(물건)을 잃거나 나쁜 일 등을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마음의 고통을 말한다(장성언 1353). 따라서 근심이나 걱정을 의미하는 ‘시름’과는 차원이 다르다.

5-6행은 원시의 중장을 번역한 것인데, 분위기를 살리다보니 지나친 의역이 되고 말았다. listen이나 aye와 같은 시어나 대시도 불필요하다. “(어디서) 일성 호가는”이란 표현을 “a reed-leaf whistle in the dark”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문의 ‘호가’(호인들이 갈잎으로 만든 통소를 부는 소리)라는 의미보다 어두운 밤 갈대 숲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로 오해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또 ‘갈잎’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a reed-leaf”로 옮길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일성 호가”는 ‘notes of a pipe’ 정도면 무난하다. 마지막 행에서 “나의 애를 끊나니”라는 표현을 “It pierces my entrails; aye, they shake.”(그 소리가 나의 내장을 찌른다. 그렇다, 내장이 떨린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너무 장황하다.

<번역3> By moonlight I sit all alone
 in the lookout on Hansan isle.
 My sword is on my thigh,
 I am submerged in deep despair.
 From somewhere the shrill note of a pipe...
 will it sever my heartstrings? (Richard Rutt 29)

여기서는 제3행에서 원시 중장의 “큰 칼 옆에 차고”를 “my sword is on my thigh”로 번역하고 있는데 관점의 차이에서 오역이 발생한 듯하다. 아마 번역자는 시적 화자가 양반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넓적다리 위에 칼을 올

려놓은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의자 위에 앉거나 탁자에 걸터앉는 경우, 또 심지어 바닥에 앉는 경우라 하더라도 허리에 칼을 차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주어야 한다. 또 ‘큰 칼’의 경우에도 단순히 sword라고 하기보다는 great sword로 하는 것이 장중한 느낌을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다. 4행의 “deep despair”란 표현은 오역이다. 이렇게 하면 /d/로 운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의미가 달라진다. despair는 완전히 희망을 잃고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시에서 보여주는 (걱정, 근심으로 인한) 시인의 산란한 마음과는 거리가 있다. 만일 이러한 절망적인 마음으로 전투에 나갔다면 싸울 수도 없었을 것이다.

5행에서 “일성호기”를 “shrill note of a pipe”(날카로운 피리 소리)로 번역하고 있는데, shrill은 음이 높고 날카로워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뜻한다(Cobuild 1345). 따라서 원문에서 암시하는 애절한(구슬픈) 피리 소리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뒤에 나오는 말줄임표도 생략하는 것이 좋다. 마치 피리 소리가 들리는 듯한 청각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듯한데 원문에 없는 것을 번역자가 임의로 넣어서는 안된다. 6행에서는 “나의 애를 끊나니”를 “Will it sever my heartstrings?”(그것이 나의 심금을 끊을 것인가)로 번역하고 있다. 감탄의 내용을 의문문으로 처리한 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심금을 끊는다’는 표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heartstrings’(心琴)란 사랑이나 동정을 느끼는 (사람의) 깊은 감정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절단한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tug at someone’s heartstrings’(~의 심금을 울린다)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

<번역4> On this moonlit night on Han San isle,
I sit alone in this fortified tower.
With my great sword at my side,
deep melancholy overwhelms.
From somewhere the shrill sound of a flute
tears me inside out. (Inez Kong Pai 90)

제4행에서 “깊은 시름”을 “deep melancholy”로 번역하고 있는데 ‘melancholy’는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슬픔을 뜻한

다(Longman 831). 따라서 원시에서 말하는 ‘시름’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걱정이나 근심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앞날, 또 나라의 운명에 대한 만감이 교차하는 깊은 시름을 의미한다.

5행에서 “somewhere”, “shrill”, “sound”의 /s/가 두운을 이루고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대로 shrill은 오역이므로 다른 시어로 대체해야 한다. 6행의 “tears me inside out”(철저히 나를 찢어놓는다)에서 ‘inside out’은 ‘전적으로’ ‘철저히’의 뜻인데 주로 구어에서 쓰인다. 또 ‘tears me’ 보다는 ‘tears my heart’가 좋고, 한 걸음 더 나아가 ‘tear’ 보다는 ‘rend’(매우 강한 힘으로 발기발기 찢다)가 의미 면에서 더 강할 뿐 아니라 문학적이며 고어풍의 단어(Collins 1223)이기 때문에 시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린다. 특히 종장에서 rend를 사용하여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놓으면 ‘애’를 끊는 느낌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필자 번역) Sitting alone in watchtower, moonlit Hansan isle,
Crushed with great anxiety, great sword at side,
Plaintive notes of a pipe my rend heart!

2. 이조년의 시조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라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조년(1269-1343)의 시조 ‘다정가’인데 서정 미학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화의 청초와 순백, 월백의 낭만과 환상, 삼경 은한의 신비감, 자규의 애원, 이것들이 어우러져 봄밤의 애상적·낭만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고려말의 시조 중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번역1> Pear flowers in full bloom
Moon-white under the Milky way

Cuckoos serenade winsome

Spring feelings of pear-spray

With my bosom full of sentiment

I can't sleep the night away (Kim Unsong 20)

제1연 1행에서 ‘이화’를 “pear flowers”로 번역하고 있는데 flower보다는 blossom이 적당하다. 이는 전자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꽃을 의미하나 후자는 특히 과일을 맺는 식물의 꽃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뒤에 나오는 “in full bloom”은 원시에는 없는 구절이므로 삭제하는 편이 좋다. 2행에서는 “은한이 삼경인제”를 단지 “under the Milky way”로 번역하고 있는데 원시의 ‘삼경’(한밤중, 자정)이란 의미가 나타나 있지 않다. 원문에서는 초장에서 한밤중의 고요함을 부각시키고 중장에서는 새의 울음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청각적 이미지와 함께 대비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은하수’란 단어 역시 way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해야 한다.

제2연은 역자의 감상에 치우친 나머지 원시와는 약간 동떨어진 번역이 되었다. 원시의 중장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라마는”을 “Cuckoos serenade winsome spring feelings of pear-spray”로 처리하고 있다. 여기서 ‘winsome’(매력있는, 쾌활한)은 사람의 관심을 끌거나 즐겁게 하는 것에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다 (Webster 806). 따라서 번역시의 의미대로라면 새가 ‘배나무 가지에 어린 쾌활한 봄기운을 즐겁게 노래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 두견새가 일지춘심을 알 리가 없다고 말하고, 소쩍새의 ‘애절한’ 소리를 들으며 감상에 젖는 시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된 셈이다. 3연에서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를 “with my bosom full of sentiment”로 번역하고 있다. 물론 sentiment가 ‘감정’ ‘다정다감’의 뜻으로도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의미가 좀 약하고 너무 포괄적이다.

<번역2> The moon beams white on the peach blossoms,
the Milky Way moored at midnight.
How can the nightingale ever know
the spring mind lodged in the bough?
I can hardly get to sleep

as if tenderness were a sickness. (Jaihiun J. Kim 23)

위의 시는 전체적으로 간결성과 함축미를 살리기보다는 산문체로 설명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2행의 *moored*와 4행의 *lodged*는 생략하는 편이 오히려 더 함축적인 느낌을 준다. 1행에서는 ‘이화’를 “*peach blossoms*”(복숭아 꽃)로 번역하고 있는데 ‘배’를 의미하는 *pear*를 써야 하고, 3행의 “*nightingale*” 역시 ‘자규’(소쩍새, 두견새)를 뜻하는 *cuckoo*를 쓰는 것이 좋다. 4행에서는 ‘춘심’을 “*spring mind*”로 직역하고 있는데, ‘춘심’이란 시어가 봄철에 느끼는 감상적이고 애상적인 정서(김종오 193)를 의미한다면 ‘*spring spirit*’가 더 잘 어울린다. 게다가 이렇게 하면 /s/로 운을 맞출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지막 6행에서는 ‘다정’을 “*tenderness*”로 번역하고 있는데 의미가 좀 약하다. 이 보다는 더 따뜻한 온정을 뜻하는 ‘*warmheartedness*’가 적절하다. 또 ‘~인 양’을 위의 경우처럼 ‘as if’나 ‘like’로 표현해도 좋으나 ‘*sham*’(가짜의, 모조의)과 같은 형용사를 쓰면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뒤의 *sickness*와도 운을 맞출 수 있다.

<번역3> *White moon, white*
Pear blossoms, the Milky Way
White across the sky.
An ignorant bird
Repeats and repeats its song,
Not noticing
The sorrow of spring.
Too much awareness is a sickness;
It keeps me awake all night. (Peter H. Lee 64)

위의 시는 번역시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를 창작한 듯한 느낌을 준다. 원시의 행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 초장을 1~3행에 걸쳐 묘사하고 있는데 ‘white’를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여기서 “*white pear blossoms*”나 “*the Milky Way white across the sky*”에서 *white*는 모두 불필요하다. 이미 *pear blossoms*나 *the Milky Way* 속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white moon*”도 오역

이다. 원시에서는 달 자체가 하얗다는 뜻이 아니라 흰 배꽃에 달이 밝게 비치고 있음을 말한다. 게다가 ‘삼경’이란 시어를 생략해 버림으로써 자정의 고요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중장을 번역한 제 4~7행에서는 ‘자규’를 “an ignorant bird”로 처리하고 있다. 여기서 ‘ignorant’는 어떤 특수한 것에 대해 지식이 없거나 배운 것이 없는 것, 또는 무식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비난이나 모욕의 의미가 강하다(장성연 125). 물론 원문에서 ‘배꽃 가지에 서려있는 봄날의 애뜻한 애상을 소쩍새 네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질문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소쩍새’를 단순히 ‘(무지한) 새 한 마리’로 바꾸어 놓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 5행의 “repeats and repeats its song”이란 구절도 시적인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다. 8~9행에서는 ‘다정’을 “too much awareness”로 번역하고 있는데 오역이다. ‘다정’이란 정이 많다는 것이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게다가 의존명사 ‘~인 양’의 의미도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번역4> Moonlight white on white pear blossoms,
the Milky Way in the Third Watch:
how could the cuckoo know that spring suffuses the branch?
Love, too,
is like a sickness; I cannot sleep tonight. (Kevin O'Rourke 29)

앞에서 지적한 대로 제1행의 “white pear blossoms”에서 white는 불필요하다. ‘삼경’이란 단어를 그대로 풀이하여 “the Third Watch”로 처리하고 번역시 하단부에 각주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문학 작품의 번역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각주는 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역보다는 오히려 그 뜻을 살려 ‘midnight’를 쓰는 것이 이해에 훨씬 도움을 준다. 4행에서는 중장의 ‘다정’을 ‘love’로 번역하고 있는데, 의미가 강하고 직설적인 표현이어서 시적인 맛을 떨어뜨린다.

(필자 번역) Moonlight on pear blossoms, Milky Way at midnight
How cuckoo ever know spring spirit in bough?
Sham sickness of warmheartedness keeps me awake.

3. 김중서의 시조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에라

김중서(1390-1453)의 시로 무인의 기상과 의지를 드러내는 매우 감각적이며 인상적인 시이다. 북방 국경의 차디찬 날씨와 악조건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시인의 호방한 기개가 잘 드러나 있다.

<번역1> Strong winds blow on, tree tops sway
Bright moon, cold over the white snow

At frontier, ten thousand miles away,
I stand tall leaning on my sword

I whistle in the wind and a ray
Of sound echoes loud in the vale (Kim Unsong 42)

원시의 초장을 번역한 제1~2행에서 “삭풍”을 “strong winds”로 처리하고 있다. ‘삭풍’이란 북쪽에서 불어오는 매섭고 찬바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가운 변경의 겨울을 묘사하고 있는데 strong으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또 “tree tops sway”에서 sway는 나뭇가지나 등(燈)이 미풍으로 인해 조용히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Webster 807). 따라서 이는 앞의 ‘삭풍’이나 겨울밤의 눈덮인 산하와 어울리지 않는다. 2행의 “the white snow”에서 white 역시 불필요하다.

중장을 번역한 2연에서 “만리변성에”를 “at frontier, ten thousand miles away”로 번역하고 있는데 ‘만리’를 그대로 직역하여 ‘ten thousand miles’ 또는 ‘ten thousand ri’로 길게 풀어 쓸 필요가 없다. 구체적인 거리를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만 전해주면 될 것이다. 2행의 “leaning on my sword”에서는 원문의 ‘짚다’를 lean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에 기대어 몸이 구부러지거나 기울어진 상태를 암시하는데,

큰 칼을 쥐고 서있는 장수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제3연에서 “긴 파람 큰 한 소리”를 “I whistle in the wind”로 번역하고 있는데 내용이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큰 한 소리’의 의미가 나타나 있지 않다. ‘큰 한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고함소리’나 ‘외침’을 의미한다. “거칠 것이 없에라”라는 부분은 원문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이 말은 ‘가로막을 것이 없다’(김종오 45)의 뜻인데, 여기서는 ‘두려울 것이 없다’ ‘나를 막을 자가 없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변방을 지키며 오랑캐를 노려보고 있는 용맹한 장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구절이다. 물론 여기서의 ‘에라’는 감탄형 종결어미이다. 그러나 역자는 이 구절의 의미를 휘파람 소리가 메아리치며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번역2> The north wind nips on the bare-tree-tips.
the moon shines cold on the snow.
I stand, great sword in hand,
in the frontier fortress far away.
I whistle long and shout;
there's nothing that holds me back. (Jaihiun J. Kim 34)

제1행의 “bare-tree-tips”에서 세 단어 모두를 하이픈으로 묶을 필요는 없다. ‘bare’는 떼어놓는 것이 좋다. 또 4행에서 frontier라는 단어 안에 이미 ‘변두리’ ‘가장자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far away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제3행과 5행은 주어와 모두 ‘I’로 하여 시작함으로써 시적인 맛과 긴장감이 사라지게 하고 있는데, 차라리 하나를 삭제하여 5행을 ‘long whistle and mighty shout’로 하면 보다 깔끔한 문장이 된다. 마지막 6행에서도 원문의 의미는 드러나고 있으나 관계대명사절로 길게 늘어 쓸 필요가 없다. 차라리 부정사를 써서 ‘nothing to hold me back’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면 된다.

<번역3> Wintry winds punish the dead branches,
The moon hangs high and cold over the snows.
On nights like this I pace the fortress walls,
My mighty sword in hand.

Alas, nothing opposes me; only
My fierce voice shakes the land. (Peter H. Lee 72)

위의 시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기보다 새로운 시를 창작한 듯한 느낌을 준다. 제1행에서 “나무 끝에 불고”를 “punish the dead branches”로 번역하고 있는데 역자의 감정이 지나치게 반영된 인상을 준다. 물론 dead가 ‘무감각한’ ‘감각을 상실한’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2행에서 “hangs high”도 불필요하다.

원시의 중장은 국경의 성벽에 올라 큰 칼을 짚고 서있는 시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시에서는 3행에서 “on nights like this I pace the fortress walls”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과도 의미가 다를 뿐더러 역자의 상상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원시에서는 ‘검을 짚고 서있다’의 의미인데 번역시에서는 성벽을 천천히 거니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게다가 “on nights like this” 역시 불필요하다.

제5행에서는 감탄사 ‘ala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애나 한탄, 연민, 걱정, 불안 등을 표출할 때 쓰는 단어이다. 따라서 이 시어는 무인의 호방한 기개가 드러난 본 작품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6행에서는 “긴 파람 큰 한 소리”의 의미를 축소시켜 단지 “my fierce voice”로 처리하고 있는데 약간 지나친 번역이다. fierce는 ‘무시무시한’, ‘무서운’의 뜻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나 위협적인 태도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로 쓰인다. ‘긴 파람’은 ‘길게 내부는 휘파람’을, ‘큰 한 소리’는 ‘크게 한번 외치는 고함소리’를 의미한다.

<번역4> The north wind bitter blows on skeletal trees
in this wilderness of snow by moonlight blanched.
At this fortified front, ten thousand ri wide,
I stand with my sword beside me.
Nothing before me obstructs my shout;
no echo returns — how free I am! (Inez Kong Pai 52)

위의 번역은 전체적으로 장황할 뿐 아니라 원문에 없는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필요 없는 말을 덧붙여 원문의 경제적 표현과 스타일을 망쳐서는 안 된

다. 제1행의 skeletal, 2행의 wilderness, 6행의 no echo returns 등이 모두 불필요하다. 3행에서는 중장의 ‘만리변성’을 “fortressed front ten thousand ri wide”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만리’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지(박용식 131) 성의 폭이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4행에서 “일장검 짚고 서서”를 “with my sword beside me”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칼을 옆에 둔다는 뜻이지 칼을 짚고 서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장을 번역한 5~6행도 앞에서 지적한대로 원시의 의미를 목소리가 거침없이 뻗어나간다는 뜻으로 오해하고 있다. 게다가 마지막 6행에서는 “How free I am!”이란 감탄문을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문에 나타난 감탄의 의미를 살리고는 있으나 이런 표현은 무사의 기개와 용맹을 암시하는 표현으로는 적절치가 않다.

(필자 번역) Boreas on tips of trees, bright moon on snow,
Standing in frontier fortress, great sword in hand
Long whistle, mighty shout; nothing to hold me back!

III. 나오며

‘번역시를 읽는 것은 베일을 쓴 여인에게 키스하는 것과 같다’는 폴 발레리의 말은 문학작품, 특히 시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 나타나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번역시에서 시의 의미는 전달할 수 있지만 원래 시의 감정이나 형식은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 번역 작업을 포기하거나 의미의 전달에만 만족할 수는 없다. 번역자는 최대한 언어의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고시조와 같은 정형시인 경우에 최소한의 형식은 지켜야 한다. 3장(행)으로 된 시조를 5~9행이나 3연으로 분행 분연하여 틀을 깨버리면 이미 정형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의 번역에 있어서 제대로 된 번역이라면 원시에서 감지되는 리듬과 시행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의미뿐만 아니라 호흡이나 소리까지도 재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시조의 리듬, 고사성어나 한문의 관용적 표현, 고유명사 등을 시행 속에 담아내면서도 영어권 독자들의 귀

에 어설피지 않은 시행을 엮어내는 것이 번역자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한국 문학을 세계화한다는 것은 세계의 시스템에 한국 문화가 가진 특이한 감정이나 의식, 행동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세계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게 하는 것, 즉 또 다른 차이를 통해 세계 전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어령 20). 따라서 한국만의 독특한 틀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 시조는 그 짧은 어구 속에 응축된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만의 유일한 문학 장르다. 다른 어떤 나라의 형식으로 담지 못하는 독특한 것이기에 번역을 통해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영역 시조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무대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대행. 2002. 「가사 영역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 『문학과 번역 서울 심포지엄 논문집』. 한국문학번역원.
- 김종오 편저. 1990. 『옛시조 감상』. 서울: 정신세계사.
- 박용식·황충기 편저. 1994. 『고시조 주석 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 성낙은 편저. 1996. 『고시조 산책』. 서울: 국학자료원.
- 세계시조사랑협회. 2004. 『시조월드』. 제8호.
- 신대주. 2004. 『한국시』. No. 8. 서울: 한국시사.
- 신웅순. 2001. 『현대시조시학』. 대전: 문경출판사.
- 안정효. 1997. 『영어 길들이기(번역편)』. 서울: 현암사.
- 이어령. 2002.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번역의 문제점」. 『문학과 번역 서울 심포지엄 논문집』. 한국문학번역원.
- 장성언 편저. 1980. 『영어 관용법사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최정아. 2003. 「병렬 말뭉치를 통한 한국어-영어의 번역 단어수 연구」. 『번역학 연구』. 제4권 2호, 한국번역학회.
- Collins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 1987. HarperCollins Publishers.
- Kim, Jaihiun J. 1984. *Master Sijo Poems from Korea*. Seoul: Sisayongosa.

- Kim, Unsong. 1986. *Classical Korean Poems (Sijo)*. Seoul: Ilnyum.
- Lee, Peter H. 1974. *Poems from Korea*. Honolulu: An East-West Center Book.
-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1992. Longman.
- O'Rourke, Kevin. 2002. *The Books of Korean Shijo*. Cambridge: Harvard Univ. Asia Center.
- Pai, Inez Kong. 1965. *The Ever White Mountain*. Tokyo: John Weatherhill.
- Rutt, Richard. 1971. *The Bamboo Grove*. Berkeley: U of California P.
- Webster, Merriam. *Webster's New Dictionary of Synonyms*.

K C I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lational Problems in English Versions of Sijo
Poems by Yi Sunshin, Yi Jonyeon, and Kim Jongseo**

Chang, Einsik
(Joongbu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some translational problems and errors in English versions of Sijo poems by Yi Sunshin, Yi Jonyeon, and Kim Jongseo. For this purpose, six different books including the poems of those poets are examined.

There is generally a serious formal problem in English versions of classical Sijo poems the original three-chang(line) division is usually translated either into a five-line to a nine-line division, or into a three-stanza division, according to the translators. Although the classical Sijo is a fixed-form verse in Korea, the modern translators tend to translate it into a non-fixed form, making it difficult to distinguish it from free verse. The characteristic of the classical Sijo is that it consists of three lines: the first, middle, and last. Therefore, the three-line division must be kept in any translation, even if the translated verses may not convey the full meaning of the original texts.

Translations should be performed in the most strict and accurate manner so as not to distort any of the complex factors of the source text. The first principle of translation is the correct and exact reproduction of the source text into a new target text. For the translators, translating Korean classical Sijo poems and finding adequate expressions with the original rhythm and sound are a tough and constant task.

►Key Words: Sijo, classical poem, three-line division, Yi Sunshin, Yi Jonyeon, Kim Jongseo